

# ‘강강약약’ KIA... 올해도 상위권 만나 도약하나

## KIA타이거즈 주간전망

2~3일 삼성·4~6일 LG 격돌  
윤영철·불펜진 호투 관건  
중심타선 타격도 유지해야  
“잇따른 부상으로 경기 꼬여”



지난주 키움과 한화를 상대로 2승 4패, 연속 루징시리즈로 마무리한 KIA타이거즈가

이번주 상위권 팀들을 만나 도약을 노린다. 지난달 30일까지 8경기를 치른 KIA는 3승 5패로, 한화 이글스와 7위에 머물러 있다.

우선 KIA는 2일부터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만났던 삼성 라이온즈와 홈 2연전을 통해 싸늘이 승리에 도전한다. 1일 예정됐던 삼성과의 경기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면 취소됐다.

2025 KBO리그 순위 (31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LG	7	7	0	0	1.000	0.0
2	삼성	8	5	0	3	0.625	2.5
2	SSG	8	5	0	3	0.625	2.5
4	KT	8	4	1	3	0.571	3.0
5	키움	8	4	0	4	0.500	3.5
6	NC	7	3	0	4	0.429	4.0
7	KIA	8	3	0	5	0.375	4.5
7	한화	8	3	0	5	0.375	4.5
9	롯데	8	2	1	5	0.286	5.0
10	두산	8	2	0	6	0.250	5.5

삼성은 지난달 24일 개막부터 키움, NC, 두산을 상대로 5승 3패, 2위에 올라 있다. 이어 LG를 상대로 원정길에 오른다. LG는 지난달 24일부터 7전 7승 0패, 전승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두 팀 모두 현재 KIA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많은 승수를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발진의 분전이 요구된다. 먼저 2일 삼성과 2연전 문을 여는 선

발투수 윤영철의 어깨가 무겁다.

윤영철은 지난달 26일 키움전에 선발 등판해 2이닝 만에 강판당했다. 당시 2회 초 수비 실책 이후 심리적으로 흔들린 윤영철은 3명의 타자에게 연속으로 안타를 허용했고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

윤영철은 지난 시즌 척추 피로골절 진단을 받고 선발 투수가 교체될 수도 있었지만, 2달 만에 마운드에 복귀하고 바로 1군으로 합류했던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호투가 필요하다.

윤영철에 이어 3일 삼성전에서는 김도현이 선발로 나선다. 김도현은 지난달 27일 키움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2실점(비자책)으로 퀄리티스타트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 난조로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4일부터 상대하는 LG전에는 네일·양현종·올리거 선발 마운드를 책임진다.

네일은 지난달 22일 NC전(5이닝 무실점)과 28일 한화전(6이닝 무실점)에서 모두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에이스로서 위용을 선보였다.

양현종은 역대 두 번째 개인 통산 180승까지 1승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화전서 시즌 첫 퀄리티스타트를 선보이며 승리 투수 요건을 충족했으나 8회말 불펜이 역전을 허용하며 승수를 쌓지 못했다.

불펜진들의 각성도 절실하다. KIA의 선발투수진의 평균자책점은 2.63으로 리그 1위인 LG의 다음으로 좋다. 하지만 좌투구 4경기 평균자책 27.00, 전상현 3경기 평균자책 10.13, 이준영은 4경기 평균자책 6.75 등 불펜진 평균자책점은 8.07로 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심타선의 타격감 상승은 삼성과 LG의 마운드에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김도영이 부상으로 경기에서 제외된 이후 2번 타자로 타순이 당겨진 위즈덤은 지난달 28일부터 세 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터뜨리는 등 8경기에서 4홈런 8타점 OPS 1.304를 기록하며 리그 내 홈런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나성범도 지난달 25일 백투백 홈런에 이어 27일에도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최형우와 김선빈도 8경

기에서 각각 7타점과 6타점을 기록하며 KIA의 공격의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요구된다. 앞선 경기에서 KIA 야수들의 수비 실책이 마운드에 부담으로 작용해 역전패 빌미를 줬다.

이범호 KIA 감독은 “김도영과 박찬호가 시즌 시작부터 부상을 당하면서 모든 게 틀어진 부분이 있다. 개막 8경기에서 10경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선수들 몸을 그에 맞게 준비를 시켰는데 내야수 2명이 빠져나가고 나니 게임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좋은 투수의 공을 상대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불펜들도 준비가 잘 된 상태로 시즌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부상으로 2명이 빠진 것에 투수들도 압박이 있었던 것 같다. 모든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꼬여있는 상황인 하지만, 시즌 마지막에 꼬이는 것 보다는 초반에 꼬이는 게 정신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도 하나까 잘 견뎌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시테니스협회 임원진과 광주·전남 테니스 동호인들이 지난달 30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 광주테니스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성료

1000여명 7개 부문 각축  
광주오픈 성공 개최 결의

광주테니스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전남 지역 테니스 동호인들은 열띤 기량을 펼치며 화합의 큰 잔치를 열었다.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최한 ‘제8회 광주시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지난달 29~30일 광주진월국제테니스장 및 보조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00여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단체전, 여자부, 지도자·동호인부, 남자입문부, 여자입문부, 남자1년부, 여자1년부 등 7개 부문에서 각축을 벌였다.

단체전 우승은 상록클럽이 차지했다. 이어 올라온드클럽이 준우승을, 첨단클럽과 전라클럽이 공동 3위를 올랐다.

여자부는 진화봉(우정)-박지혜(유니스·한울) 조가 결승서 김운경(우정·모모)-주미영(강진플러스) 조를 꺾고 우승 컵을 안았다.

지도자·동호인부 우승은 정호연-김보람(이상 바운드) 조가 1위를, 김평화(어등산)-김건수(상록) 조가 2위를 각각 거머쥐었다. 고미서-윤은상(바운드) 조와 최주철(부주산)-조현(무안일로) 조는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남자입문부에선 류길재-이석원 조가, 여자입문부는 김해숙-김나리 조가, 남자1년부는 박철민-송교우 조가, 여자1년부는 정수현-최미희 조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 테니스동호인들은 대회 마지막날인 30일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테니스협회 김광희 회장과 김영배 고문을 비롯한 임원과 테니스 동호인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오픈 성공 개최 기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광주오픈을 통해 테니스인구 저변 확대와 광주·전남 테니스 발전을 기원했다.

광주오픈은 ATP(세계남자프로테니스연맹)와 KTA(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국제대회로, 오는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30개국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특히 권순우, 정현, 정운성, 남지성, 이덕희, 박의성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해 세계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최동환 기자



나주일출(전남) 배구선수단이 지난달 30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끝난 제2회 빛고을무등산배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 남자3부 우승을 차지한 뒤 김석주 광주배구협회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 제2회 빛고을무등산배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

전국 동호인 60개팀 2000여명 참가  
나주일출·브이라인·빛고을을 우승 영예

제2회 빛고을무등산배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가 지난달 29~30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 광주시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광주와 전남을 비롯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에서 활동하는 동호인 60개팀 20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24개팀이 출전한 남자3부는 나주일출(전남)팀이 결승에서 거창가즈아(경남)팀을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주V9마이(전북)팀과 아구맹(대전)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24개팀이 참가한 여자3부에서는 브이라인(대구)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브이퀵(광주)팀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주V9(전북)팀과 광주히트(광주)팀은 공동 3위에 올랐다.

만 50세 이상 동호인들이 참가한 시니어부에서는 12개팀이 출전해 빛고을(광주)팀이 결승에서 휴먼스(서울·경기 연합)팀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정읍배사모(전북)와 렛츠고(광주)는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김석주 광주시배구협회장은 “어수선한 사회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 빛고을무등산배 생활체육배구대회의 새로운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 ‘광주 스포츠클라이밍 간판’ 신은철, 태극마크 달았다

전국선수권 남자일반 스피드 1위  
정예진 女볼더 3위... 대표 선발

‘광주 스포츠클라이밍 간판’ 신은철(사진)과 정예진(이상 광주 더월)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신은철은 지난달 28~30일 전북 군산 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겸 2025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일반부 스피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17세 이상 200여명 선수들이 참여해 태극마크에 도전했

다. 볼더링, 리드, 스피드 3종목이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각 종목 1, 2위 선수가 2024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신은철은 남자일반부 스피드 개인기록과 토너먼트 성적 집계 결과 4점을 기록, 1위를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신은철은 스피드 개인 기록에서 5초38로 1위를 차지했고, 토너먼트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최종빈(광주 더월)은 스피드 개인기록 4위와 토너먼트 3위를 차지, 총 12점을 기록하며 종합 3위에 올랐다.

정예진은 여자일반부 볼더에서 결승진

출자 6명 중 3위를 차지했다. 정예진은 서재현(서울시청)이 주종목인 리드와 볼더에서 2관왕을 달성해 볼더 부문 국가대표로 뽑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발된 신은철과 정예진 등 국가대표 선수들은 ‘IFSC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과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 IFSC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

최동환 기자